

수익비용대응, 이익지속성 및 정보비대칭

The Matching Principle, Earnings Persiste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이규진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Kyu-Jin Lee(lee96026@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수익비용대응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익지속성과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경영자와 정보이용자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이익의 질을 높임으로써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보비대칭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으로 측정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고,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경우 이익지속성과 정보비대칭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연구결과,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기업들은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이익의 지속성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비용대응이 잘 이루어질수록 이익의 질이 개선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이익의 지속성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경영자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을 수행하여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중심어 : | 수익비용대응 | 이익지속성 | 정보비대칭 |

Abstract

This study first examines whether the matching principle reduces information asymmetry and verifies the effect on earnings sustainabil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pres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information users, managers can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by increasing the quality of earnings. Information asymmetry is measured by the financial analysts' earnings forecast variance. When we look at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verify whether information asymmetry decreases as the response to the revenue cost increases and whether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rofit persiste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appears when the response to the revenue cost is high.

As a result, firms with high revenue cost response showed a decrease in information asymmetry. The persistence of the earnings from the high earnings-cost response shows that the analysts' earnings forecast dispersion decreases. This means that the better the response to the revenue cost, the better the quality of the earnings and the less the information risk about the uncertainty of the enterprise.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d whether the persistence of the earnings that responded to the high revenue cost reduces the information asymme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nagers can reduce the information asymmetry by carrying out appropriate revenue - cost responses, which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takeholders who use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 keyword : | Matching Principle | Earnings Persistence | Information Asymmetry |

I. 서론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원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보다는 재무상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권고함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원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로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익비용대응원칙은 수익과 관련성을 가지는 비용을 대응시켜 당기손익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른 적절한 당기손익을 보고함으로써 경영자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은 당 회계기간에 중립적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경영자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에 수행하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의 중립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계이익의 질은 떨어진다. 이익의 질이 낮은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익비용대응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익지속성과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경영자는 기업에 대해 정보이용자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보이용자들은 이익의 질이 높은 회계이익정보가 의사결정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경영자와 정보이용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이익의 질을 높임으로써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재무분석가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이익예측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익예측정보는 다른 예측정보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재무분석가가 스스로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 대해, 재무분석가는 낙관적인 이익예측편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이 커질수록 낙관적인 이익예측편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먼저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본다.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이익지속성과 정보비대

칭의 대응변수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연구결과,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기업들은 이익지속성과 정보비대칭간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익비용대응이 잘 이루어질수록 이익의 질이 개선되어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수익비용대응에 대한 기업특성과 이익의 질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이익지속성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간의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전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경영자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을 수행하여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III장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제IV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고 제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설정

수익비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수익비용대응과 기업특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 당기 수익과 비용간의 관련성이 강할수록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연구모형으로 과거 40년 동안 수익비용대응은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이익지속성은 감소하고 이익변동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6].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집단은 이익지속성과 이익예측가능성이 높았으며 발생액의 질이 높았고 이익유연화가 두드러졌으며 이익반응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개선되어 감사인이 인지하는 감사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익예측가능성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편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재무분석가는 성과가 나쁜 기업보다는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재무분석가의 자기선택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무분석가의 자기선택으로 인하여 이익예측치의 분포는 재무분석가의 낙관적인 편이 있음 나타내고 있다[4]. 재무분석가들이 랜덤워크 모형보다 더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10].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이 클수록 낙관적인 예측편의가 커짐을 발견하였다[5].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의 대응변수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은 낮아질 것이다. 이익지속성이 높은 기업은 성과가 좋은 기업이므로, 재무분석가의 낙관적인 편의로 인하여 이익지속성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이익의 지속성은 이익의 질이 좋아져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은 낮아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 가설 1 : 수익비용대응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은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가설 2 :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이익지속성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 사이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표본을 연구표본으로 선정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총 1436개 표본이 선정되었다.

- (1)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
- (2)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업 기업

- (3) 12월 결산법인
- (4) 자본잠식이 되지 않은 기업
- (5) 재무자료를 KIS-VALUE 및 FN-Guide에서 입수 가능한 기업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별 수익비용대응 수준을 측정할 경우 과거 5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2009년 수익비용대응수준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식의 설명력이다. 따라서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기간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가 된다.

2. 수익비용대응수준의 측정

개별 기업별로 수익비용대응의 수준을 측정하지는 않았다[6]. 본 연구는 개별 기업별로 수익비용대응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7].

$$REV_t = \beta_0 + \beta_1 EXP_t + \epsilon_t \quad (1)$$

모형 (1)에서 REV_t 는 t년도 총수익으로 총매출액을 이용하였으며 EXP_t 는 t년도 총비용이다. 이는 총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이 때 각 변수는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의 평균인 평균자산으로 나누었다. 위 모형 (1)로부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별로 adj. R^2 를 산출한다. adj. R^2 가 높을수록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1)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FD_t = & \beta_0 + \beta_1 NEU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 + \beta_4 ROA_t + \beta_5 BM_t + \beta_6 GRW_t \\ & + \beta_7 BETA_t + \beta_8 ACC_t \\ & + \beta_9 NEG_t + YD + ID + \epsilon_t \end{aligned} \quad (1)$$

변수설명

AFD	: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
NEU	: 수익비용대응 측정치
SIZE	: ln(기말시가총액)
LEV	: 총부채 / 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BM	: 장부가치 / 시장가치
GRW	: 매출액 성장률
BETA	: 체계적 위험
ACC	: 발생액
NEG	: 손실기업이면 1; 아니면 0
YD	: 연도더미
ID	: 산업더미

시장참여자의 대표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의 분산은 이익예측치를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FnGuide의 DataGuide3.0에서 3월에서 6월까지 추출된 재무분석가 예측치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이익예측치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정보비대칭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 AFD는 재무분석가 주당이익예측치의 표준편차를 기초조가로 나누어서 구한다. 모형 (2)에서 β_1 이 유의한 (-)의 값을 가진다면, 이는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 대응변수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SIZE는 기업의 규모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정보비대칭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을 의미하는 LEV와 손실을 의미하는 NEG는 재무적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무적 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미래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재무적 위험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성장률인 GRW는 기업의 성장에 의하여 매출액의 변동성이 커지면 정보비대칭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매출액성장률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베타는 시장평균수익률에 대한 기업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베타가 클수록 기업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베타가 클수록 자본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CC는 발생액이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11].

본 연구의 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AFD_t = \beta_0 + \beta_1 PST_t + \beta_2 D_t + \beta_3 PST_t \times D_t + \beta_4 SIZE_t + \beta_5 LEV_t + \beta_6 ROA_t + \beta_7 BM_t + \beta_8 GRW_t + \beta_9 BETA_t + \beta_{10} ACC_t + \beta_{11} NEG_t + YD + ID + \epsilon_t \quad (3)$$

이익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PST는 당기의 순이익이 미래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개별 기업별 과거 5년 자료를 이용하여 식(4)을 분석하고 여기서 추정된 회귀계수 b1을 이익지속성(PST)으로 정의한다.

$$EPS_t = b_0 + b_1 EPS_{t-1} + \epsilon_t \quad (4)$$

D는 NEU가 상위 33% 속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모형 (3)의 실험변수는 이익지속성을 의미하는 PST와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기업을 의미하는 D의 상호작용변수인 PST×D이다.

PST×D의 회귀계수(β_3)는 수익비용대응이 낮은 경우와 비교하여 높은 경우에 이익지속성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 사이의 관련성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PST×D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β_3)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면 가설 2는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N=1436)

변수	평균	표준편차	25%	중위수	75%
AFD	0.018	0.024	0.005	0.010	0.02
NEU	0.836	0.299	0.849	0.964	0.993
PST	0.247	1.305	-0.153	0.137	0.504
SIZE	28.004	1.481	26.841	28.005	29.061
LEV	1.062	1.145	0.374	0.762	1.306
ROA	0.056	0.067	0.017	0.045	0.086
BM	0.925	0.627	0.498	0.790	1.208
GRW	0.072	0.238	-0.033	0.048	0.137
BETA	0.845	0.409	0.543	0.852	1.12
ACC	-0.020	0.071	-0.059	-0.021	0.01
NEG	0.126	0.332	0	0	0

[표 1]은 수익비용대응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보여준다. 정보비대칭의 대응치로서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AFD)의 평균은 0.018과 중위수는 0.010로 나타났다. 실험변수로서 수익비용대응을 의미하는 NEU의 평균은 0.836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의 평균은 28.004(약 1조 4천 5백억원)이고 중위수는 28.005(약 1조 4천 5백억원)로 나타났다. 부채비율(LEV)의 평균은 1.062이고 중위수는 0.762의 값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이익율(ROA)의 평균은 0.056이고 중위수는 0.045이다. 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 BM의 평균은 0.952이고 중위수는 0.790의 값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변동성을 의미하는 GRW의 평균은 0.072이고 중위수는 0.04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체계적 위험(BETA)의 평균은 0.845이고 중위수는 0.852로서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 발생액을 의미하는 ACC의 평균은 -0.020이고 중위수는 -0.021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손실기업을 의미하는 NEG의 평균은 0.126이다. 이는 전체기업 중 손실기업의 비중은 12.6%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수익비용대응을 의미하는 NEU와 정보비대칭의 대응치로서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을 의미하는 AFD는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을 통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ST와 AFD는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익지속성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기업규모를 의미하는 SIZE와 AFD는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이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채비율을 의미하는 LEV와 AFD는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재무부실위험이 클수록 미래불확실성이 증가함으로써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자산이익률을 의미하는 ROA와 AFD는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익률이 높을수록 미래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BETA는 체계적 위험으로서 AFD와 양(+)의 상관계수를 가진다. 손실기업을 의미하는 NEG는 AFD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표 (N=1436)

변수	AFD	NEU	PST	SIZE	LEV
NEU	-0.047 ***				
PST	0.072 ***	-0.009			
SIZE	-0.211 ***	-0.091 ***	0.015		
LEV	0.383 ***	0.005	0.131 ***	-0.048 *	
ROA	-0.208 ***	0.027	0.058 **	0.138 ***	-0.427 ***
BM	0.322 ***	0.037	-0.056 **	-0.274 ***	0.078 ***
GRW	-0.050 *	-0.019	-0.016	-0.005	-0.075 ***
BETA	0.206 ***	-0.04 *	0.008	0.192 ***	0.190 ***
ACC	-0.035	0.093 ***	-0.008	-0.054 **	-0.138 ***
NEG	0.293 ***	-0.069 ***	0.081 ***	-0.018	0.427 ***

변수	ROA	BM	GRW	BETA	ACC
BM	-0.359 ***				
GRW	0.317 ***	-0.144 ***			
BETA	-0.159 ***	0.065 **	-0.018		
ACC	0.295 ***	-0.023	0.149 ***	0.004	
NEG	-0.536 ***	0.194 ***	-0.175 ***	0.212 ***	-0.196 ***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표 3]은 수익비용대응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실험변수인 NEU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을 수행할수록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실험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IZE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으로 유의하다. LEV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미래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 위험(BETA)과 손실기업터미(NEG)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위험을 증가

할수록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N=1436)

종속변수 : AFD			
변수	기대 부호	회귀계수	t-값
절편	?	0.043	3.65
NEU	-	-0.006	-3.37***
SIZE	-	-0.002	-4.97***
LEV	+	0.007	11.24***
ROA	-	-0.045	4.03***
BM	+	0.010	10.12***
GRW	-	-0.001	-0.50
BETA	+	0.007	4.57***
ACC	+	0.001	0.10
NEG	+	0.010	5.10***
수정 R ²		0.345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가설 2를 검증하는 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한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변수는 PST× D로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경우 이익지속성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PST× D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이익의 지속성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검토한 결과 5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N=1436)

종속변수 : AFD			
변수	기대 부호	회귀계수	t-값
절편	?	0.038	3.24***
PST	+	0.002	3.09***
D	-	-0.004	-3.33***
PST×D	-	-0.002	-2.57***
SIZE	-	-0.002	-4.92***
LEV	+	0.006	10.44***
ROA	-	-0.041	3.64***
BM	+	0.010	10.37***
GRW	-	-0.001	-0.32
BETA	+	0.008	4.83***
ACC	+	0.002	0.27
NEG	+	0.009	4.77***
수정 R ²		0.350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V. 결론

수익비용대응원칙은 수익과 관련성을 가지는 비용을 대응시켜 당기손익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른 적절한 당기손익을 보고함으로써 경영자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원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보다는 재무상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권고함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원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익비용대응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익지속성과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결과 경영자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을 잘 수행하는 경우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이익의 지속성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처리의 중립성이 잘 수행된 이익의 지속성에 대해 재무분석가들이 상대적으로 덜 낙관적인 편의로 이익예측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이익의 지속성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을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경우 이익지속성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간의 음(-)의 관련성이 나타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경영자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을 수행하여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차감하여 비용을 계산했기 때문에 수익비용대응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오차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백원선, “회계환경의 변화와 수익비용대응 원칙,” 경영

- 학연구, 제40권, 제1호, pp.57-77, 2011.
- [2] 백원선, “수익비용대응원칙과 이익의 질,” 회계학연구, 제36권, 제2호, pp.101-127, 2011.
- [3] 백원선, 박성진, “기업수명주기, 수익비용대응 및 차별적 비용인식,” 회계학연구, 제38권, 제2호, pp.215-245, 2013.
- [4] B. Baik, “Self-Selection Bias in Consensus Analysts’ Earnings Forecasts,”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5, No.6, pp.141-168, 2006.
- [5] 한봉희, “증권분석가의 회계이익 예측 상이도가 예측편의와 미래주가에 해 내포하는 의미,” 회계학연구, 제21권, 제4호, pp.1-20, 1996.
- [6] I. Dichev and V. Tang, “Earnings Volatility and Earnings Predict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47, No.1-2, pp.160-181, 2009.
- [7] 노밝은, “수익비용대응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가능성,” 회계저널, 제22권, 제4호, pp.213-238, 2013.
- [8] 정현욱, 이강일,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15권, 제4호, pp.113-148, 2014.
- [9] S. Das, C. Levine, and K. Sivaramakrishnan, “Earnings Predictability and Bias in Analysts’ Earnings Forecasts,” The Accounting Review, Vol.73, pp.277-294, 1998.
- [10] 정석우, “재무분석가의 분석기업 결정과 예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pp.61-84, 2003.
- [11] M. T. Bradshaw, S. A. Richardson, and R. G. Sloan, “Do Analysts and Auditors Use Information in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pp.45-74, 2001.

저 자 소 개

이 규 진(Kyu-Jin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사)
- 2007년 2월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 2012년 8월 ~ 현재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경영, 재무회계, 공시